섬김: 우리의 정체성

성 경 본 문	요한복음 13:1~17, 34~35
요 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14~15절).
찬 송	302장(통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455장(통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과의 목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행위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한다.

I. 생각하기

1. 누군가를 조건없이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2. 여러 면에서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왜 어려운지 나누어 봅시다.

II. 생각 넓히기

요한복음 13-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어서 '다락방 강화'라 불리기도 합니다. 다락방 강화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락방 강화의 첫 부분으로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1절).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에 관한 가르침이나 설교를 하는 대신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 주십니다. 놀란 베드로는 왜 자신의 발을 씻기려 하시는지를 물으며 거절합니다. 베드로는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역행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보통 사람들은 샌들을 신든지 아니면 맨발로 다녔기에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거나 손님이 찾아오면 하인들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념이나 상식을 깨뜨리고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니 베드로로서는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한 예수님의 행동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둔 날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섬김에 대한 우리의 지평을 넓혀보겠습니다.

1. 섬김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고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즉, 발을 씻겨주시는 행위에 담긴 의미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8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도 모른 채 그의 발 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나서기를 좋아하고 성미 급한 베드로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님께서 거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기려 하셨을 때 베드로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세족식에 담긴 구속, 죄의 용서, 혹은 죄씻음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감추어질 뻔 했습니다. 여기서 '목욕한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목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세례'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목욕을 하여 이미 깨끗해졌지만 일상에서 범하는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관복음서(마태, 마가, 누가)가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의미를 전달했다면, 요한복음은 세족식을 통해 그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행위에는 그분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충분히 녹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의 죽음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제자들이 죄 씻음 받을 것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을 만큼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을 통해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신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2, 11절).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곧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자기 사람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실증해 보이고 계십니다. 유다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알고 있습니까?

2. 섬김은 큰 자의 몫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 옷을 입으신 예수님은 선생 혹은 주이신 그분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14-15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도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안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눅 22:24 참조).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꿈꾸고 기대하던 메시야 왕국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진정으로 큰 자는 섬기는 자,

즉 발을 씻겨주는 자임을 몸소 실천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해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높여졌으니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 섬김을 훈련하는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 6:10)라고 강조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려 하면서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끼리 시기와 질투로 몸살을 앓거나 기득권 다툼으로 분열을 일삼는 교회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높여진 자들이 서로를 향해 섬김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곳이지, 높아지기 위해 힘쓰는 곳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섬기기 힘든 사람의 발까지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입니다.

3. 섬김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줄 수 있다면 더 이상 사랑이 무엇인지를 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에게 새 계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34-35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야기 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섬김과 사랑의 밀접한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서로를 향한 사랑을 섬김을 통해 표현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섬김은 마지 못해 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런 면에서 섬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데이빗 케이프와 토미 테니가 저술한 <종의 마음— *God's Secret to Greatness: The Power of the Towe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십자가와 대야를 메고 전 세계를 다니며 거리에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수천 명의 마음을 움직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지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요한 무기는 종이 되는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검을 내려놓고 수건을 두르라고 권면합니다. 케이프와 테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의 세포 속에 섬김의 DNA를 넣어주셨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섬김의 DNA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III. 생각살기

1. 자기를 팔아 먹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처럼,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에게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우리 소그룹이 이웃들을 초청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모임이나 행사를 계획해 보고 실천해 봅시다.